

주간기도정보

2025. 9. 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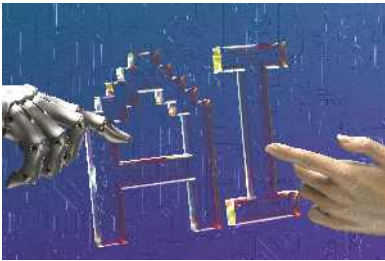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디지털 혁명 시대, 교회의 새로운 사명

AI가 주는 위로와 위험 속에서 ‘외로움을 품는 공동체’로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신앙과 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최근 열린 학술회의와 실제 교인들의 경험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원장 신원하)은 지난 25일 서울 삼일교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 교회는 외로움을 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장영하 영국 서식스대 교수는 “AI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지능을 가진 존

재로 인식될 만큼 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사물과 사람이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외로움은 확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기술에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영균 분당좋은나무교회 목사도 “교회는 인간의 정체성과 지위를 다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통시적 연결성’과 ‘공시적 연결성’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도 신앙의 유산을 확인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태도, 그리고 동시대의 목회자 및 공동체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초연결성이 핵심인 디지털 혁명 시대에 ‘연결하는 능력’을 거룩하게 활용해 교회와 세상을 잇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실제 교인들의 일상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20대 청년 박모씨는 신앙적 고민을 교회 공동체에 털어놓는 대신 생성형 AI에 질문을 던졌다. 그는 “답변이 특별히진 않았지만 쉽게 나눌 수 없던 고민을 깊이 대화하며 정서적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생 자녀를 둔 이모씨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AI 상담을 통해 “먼저 공감해주는 대화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눈물을 쏟은 경험을 고백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AI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학습이나 프로그래밍보다 ‘심리상담과 감정 지원’, ‘인생 계획’, ‘가치 탐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AI 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정신적 부작용도 보고된다. 미국 UCSF 정신과 키스 사카타 박사는 “올해 들어 AI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잃고 입원한 사례를 12명이나 목격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AI 시대에도 인간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교회 공동체라고 지적한다. 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FMnC) 소속 윤석빈 서강대 교수는 “AI네이티브 세대는 AI를 언어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답변만으로 인간의 영적 차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AI의 답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일 뿐”이라며 “기독교적 데이터를 정리하고 축적해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AI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혁명은 교인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사명을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있다. 교회는 기술이 주는 편리함을 존중하되, 인간이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정체성과 소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해 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라디아서 6:14)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베드로후서 10:23-25)

하나님,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요동하는 세상속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주목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고도화된 AI 기술이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모방하며 현실에서 떠나 가상세계에 머물게 하는 세상의 미혹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케 하소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온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 영원한 산 소망을 굳게 잡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들의 비극...사고로 사망해도 장례도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파병으로 희생된 군인 영웅 추앙 보며 자괴감 삼켜



지난해 8월 말, 러시아 사할린 남부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신모 씨가 벽돌 더미에 깔려 숨졌다. 그날은 그의 여덟 살 아들의 생일이었다. 고향의 가족은 작은 생일상을 차리고 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빌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은 차가운 유골함뿐이었다. 열흘 뒤 러시아의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다.

북한 파견 노동자 장모 씨가 발판에서 추락해 3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숨졌고, 그의 시신은 서둘러 화장돼 본국으로 보내졌다. 장례식도 영결식도 없었던 장 씨의 화장 비용은 동료들의 임금에서 조금씩 떼어 메워졌다.

동료 노동자들은 충격에 빠졌으나 숨을 고를 겨를조차 없이 다시 철근을 들고 같은 현장에 서야 했다. 사망자들은 철저히 지워졌다. 러시아 현지 북한 회사 장부에는 단순 사망으로만 기재됐고, 본국 문서에는 아예 흔적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반면 러시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북한 군인들은 ‘영웅’으로 추앙됐다. 같은 러시아 땅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다 맞은 죽음이었지만, 너무나도 극명한 차별 대우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의 가슴에 깊은 서러움으로 남게 됐다. 러시아 고용주들은 임금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개인이 손에 쥐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

여권은 회수되고, 임금은 장부 속 숫자로만 기록될 뿐이다. 이런 현장에서 죽음은 ‘인력 공백’으로만 여겨질 뿐이고 애도나 추모는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들 속에서도 한탄이 번지고 있다. 국가를 위해 외화벌이 계획을 수행하던 중에 죽어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러시아 현지인들조차 이를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다. 최근 북한에서 참전 지휘관과 병사들을 비롯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한 러시아인은 “전쟁에서 죽은 군인은 영웅이 됐지만, 벽돌 더미에 깔려 죽은 노동자는 장례조차 해주지 않는 인정머리 없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올해 8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희생된 군인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며 유례없는 대대적 선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러시아 현지에서 파견된 한 북한 노동자는 “우리 처지에 자괴감이 들지만 그저 목구멍으로 삼킨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파견 노동자들은 잊혀진 동료들의 죽음을 다시금 떠올리며 씁쓸한 현실을 곱씹고 있다. “전쟁터에서 전사하면 영웅이라 불리지만, 건설 현장에서 국가계획을 수행하다 죽으면 숫자로만 기록된다. 지금, 이 시점에 잊힌 동료의 죽음이 더욱 애달프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한탄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시편 74:21)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사무엘상 12:22,24)

하나님,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며 애도조차 없이 사라지는 동료의 죽음을 마음으로 삼키면서 영혼의 방향속에 신음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러시아에 파견된 모든 노동자와 파병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자신을 내어주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잊힐지라도 우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본국에 돌아간 이들을 통해 북한 곳곳에 동일한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이 가장 기다렸을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북한으로 새롭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청소년 도박중독, “손안의 카지노...아이들이 위험하다”

게임처럼 시작된 도박, 범죄로 끝난다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많아졌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총책’을 맡았던 한 인물의 증언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고액 베팅과 반복적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사다리, 파워볼 같은 간단한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카지노로 확대돼 카드 도박인 바카라, 블랙잭 등 고위험 게임에 빠지는 사례가 늘

고 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친구들과 5천 원씩 모아 바카라를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집의 고가 물건을 팔아 수천만 원을 배팅했다”며 “결국 따놓은 돈까지 모두 잃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고백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치명적 중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 학생 390만 명 가운데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중 19.1%는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도박을 했다. 특히 강원도 조사에서는 6.0%가 도박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생은 무려 11.1%로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도박 문제로 치유기관을 찾은 강원도 청소년은 2020년 24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교사의 절반은 학생 도박을 심각하게 인식한 반면, 자녀의 도박 징후를 목격한 학부모는 0.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히 돈을 잃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사기, 친구 폭행, 사채 이용 등 범죄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다고 경고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이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니라 게임의 연장선으로 인식한다”며 “어릴 때부터 사행성 아이템 거래에 노출돼 경계심이 약해지고, 결국 더 큰 액수의 도박에도 쉽게 몰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의 대응은 미약하다. 예방교육은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거의 없다. 가정의 관심 역시 부족해 학부모 인식 부족이 조기 대응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부터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상담기관, 도박예방센터 등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초등학생까지 도박에 빠지는 현실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출처: 인천일보, 강원일보 종합).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한복음 8:34,3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디모데전서 6:6-8)

하나님, 이 땅의 다음세대가 도박의 유혹에 빠져 심각한 중독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비통한 현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게임처럼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자유를 잃고,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까지 확산되는 죄의 종 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청소년들이 거짓된 쾌락과 탐심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학교와 가정 안에서 예방교육 뿐 아니라 부모세대가 먼저 주를 경외함으로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세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최선으로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면 충분한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